

◆ 제목 : 10일간의 여행

이하나

◆ 로그라인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 톱스타 은혜수가 일본군과 1000 대 1로 싸운 독립투사 김상옥의 마지막 10일에 동행하게 된 이야기.

◆ 주제 : 당신의 헌신으로 지켜진 대한민국,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작의

1923년,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악랄하게 고문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던져졌다는 사건을 우리는 역사서에서 배웠지만, 그 일을 해낸 사람이 김상옥 의사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 글은 100년 전 우리를 지키고자 별이 된 김상옥을 100년 뒤 별이라는 존재로 불리는 은혜수가 그의 마지막 업적에 동행하게 되는 이야기로, 잊히진 영웅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

◆ 등장인물

1. 은혜수 (여 / 35 / 톱스타 & 배우)
2. 김상옥 (남 / 35 / 독립투사)
3. 조창호 (남 / 35 / 조선인 순사)

◆ 대본

#1. 스튜디오 / 낮

혜수의 주얼리 화보 현장.

혜수, 화려한 의상에 액세서리를 걸치고 도도한 표정을 이어간다.

CUT TO. 패션잡지 기자(여/30대 중반)와 인터뷰하는 혜수.

기자 무려 20년째 대한민국 원탑 로코퀸, 이번 작품도 흥행하면서 역시 시청률 보증수표임을 증명했는데요. 이제 차기작을 준비하시나요?

혜수 아니요... 당분간 조금 쉴 계획이에요.. 아직은.. 작품의 여운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요... (아련한 표정)

#2. 마로니에 공원 / 낮

김상옥 동상 근처. 추운 겨울이라 인적이 드물다. 진눈깨비가 흩날린다.

모자를 푹 눌러 쓴 혜수,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며 쓰다듬고 있다.

매니저(남/20대 후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망을 본다.

혜수 (일어서며) 그래서 나 이번엔 10일 정도는 쉴 수 있대?

매니저 그게.. 다음 주엔 광고 촬영 3개가 잡혀있습니다.

이때, 혜수의 근처로 다가오는 사람들.

혜수, 고개를 푹 숙이면, 사람들 혜수를 지나간다.

혜수 (걸으며) 고양이, 밥은 줘야하지만.. 진짜 딱 10일만..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쉬고 싶어. 너한테 배부른 고민처럼 보이지?

매니저 아닙니다. 이해해요.

혜수 계속.. 내가 비워지는 느낌이야.. 이려다.. 내가 소멸될 것 같은 기분. (연극 공연 포스터들을 보며) 넌 매니저 일 좋아? 후회하진 않아? 연극배우 포기한 거.

매니저 언젠가.. 다시 돌아갈 날이 있겠죠. 누나.. 그래서 말인데요. (가방에서 대본 하나를 꺼낸다) 대표님은 모릅니다. 연극대본인데..

혜수, 대본을 받아 표지를 보면 <10일간의 여행>이라고 적혀 있다.

혜수와 매니저, 김상옥 동상 앞이다.

매니저 연극 내용이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한 건데요. 김상옥 의사와 ..

혜수 (동상을 가리키며) 이 분? (핸드폰을 꺼내 '김상옥'을 검색해서 본다)

매니저 네. 아, 누나. 그거 알아요? 이 동상에게 소원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
 혜수 말도 안 돼.
 매니저 에이, 진짜예요. 우리 연극배우들 사이에선 유명했는데?
 혜수 치..! (사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매니저 여기 김상옥 의사 신발에 손을 올리고
 혜수 (김상옥 의사 신발에 손을 올린다)
 매니저 눈을 감고
 혜수 (눈을 감는다)
 매니저 소원을 비세요.
 혜수(E) 딱 10일만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여행하게 해주세요.

암전.

#3. 채소밭 / 낮 - 배경, 1923년 (시작)

채소밭과 다섯 채의 기와집 보인다. 그 앞에 서 있는 혜수.
 바람에 혜수의 모자가 날려서 벗겨지고, 혜수, 눈을 뜬다.
 눈앞에 펼쳐진 낮선 풍경에 두리번거리는 혜수.

혜수 대호야...? 장난 치지마...? 나.. 무서워. (공포심이 몰려오는데..)

맞은편에서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머리에 채반을 이고 걸어온다.

혜수 (여자들에게 달려가서) 저기요... !!

여자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혜수를 지나가는데.. 혜수의 몸을 통과한다.
 기이한 광경에 굳어버리는 혜수.
 다시, 여자에게 뛰어가 부딪히는데.. 그대로 통과한다.

혜수 나.. 설마.. 죽은 거야..? (두려움 마음에 털썩 주저앉는다.)

#4. 거리 / 낮

양복을 입은 신사, 두루마기를 걸친 선비.
 한복을 입은 여자,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이 동시에 걸어 다니는 일제강점기 거리풍경.
 그 속에 터덜터덜 이질감 있게 외롭게 걷고 있는 혜수.
 멈춰 서서 사람들을 빨리 보지만.. 아무도, 혜수를 보지 못한다.

혜수(E) 시대는.. 일제강점기고.. 나는 귀신이고.. 시간의 경계... 뭐 이런 것에

같은 건가? 설마!! 그 동상.. 진짜 내 소원을 들어준 거야? 그럼 난 이 상태로 10일이나 있어야 하는 거야??? 헐.

이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전차를 보는 예수.

예수(E) 죽어야 하나? 내 세계로 돌아가려면.

예수, 전차 앞으로 달려가 선다. 두 눈을 꼭 감는데..!

그 순간, 예수에게 달려오는 한 남자, 상옥이다.

그러나 영혼 상태인 예수를 잡지 못하고, 전차 차선 너머로 착지한다.

당황해서 고개를 드는데.. 전차가 지나간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예수.

예수 (눈을 떠서 자신을 본다) 야.. 영혼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군! (하는데, 상옥과 눈 마주친다.) 당신, 나 보여요??? (상옥에게 걸어가는)

상옥 (일어서며) 귀신이오?

예수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내가 진짜 보여요...??? 와아...!! 살았다!!!!

상옥 귀신이면, 이미 죽은 게 아니오?

사람들,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상옥을 이상하게 보고.

상옥,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챈다.

상옥 따라오시오.

상옥, 골목길로 들어가고, 자신을 보는 사람을 발견한 예수, 신나서 따라간다.

#5. 골목길 / 낮

상옥, 예수, 마주보고 있다.

예수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상옥 조선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흔하지 않소.

예수 조선... 이라... 조선... 어??? 동상!! 당신.. 동상!!!

상옥 동상...?

예수 설마... 김상옥....?

상옥 역시, 아는 구려.

예수 그럼.. 여기가 진짜.. 100년 전이네..

상옥 흠.. 귀신도 소문을 내는지는 모르겠소만. 나를 본 것은 비밀로 해주오. 오늘, 나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꾸벅,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혜수 같이 가요..!
 상옥 ... ? 내가 어디로 갈 줄 알고...?
 혜수 어디든 같이 가요.
 상옥 (혜수의 옷차림을 본다... 낯설다) 당신.. 조선인이오?
 혜수 나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해방된 조선,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상옥 (불어지는 눈시울)

타이틀 <10일간의 여행>

#6. 종로경찰서 앞 / 저녁

폭발음 소리와 함께 경찰서의 창문이 와장창 깨진다.
 경찰서 앞 <동일당>이란 간판 집 아래 폭탄물을 막 던진 자세로 서 있는 상옥.
 곧 경찰들이 “(일본어) 폭탄이다”라고 말하며, 쏟아져 나온다. 그 속에는 창호도 있다.
 귀를 막고 서 있던 혜수, 상황이 정리된 것을 보자 상옥에게 말한다.

혜수 종로경찰서를 폭파한 소감.. 어때요?
 상옥 저긴 경찰서가 아니오. 조선인들의 무덤이지. 가오. (하고, 가는)

#7. 논밭거리 / 밤

상옥, 혜수, 걷고 있다.

혜수 우리 후손이 선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상옥 얼마나 알고 있소?

<인서트>

#. 쳇불 공장 (낮)

- 8살 상옥, 말총으로 쳇불을 만든다.

혜수(N) 선생은 하급 군인이었던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8살부터 쳇불
 공장 직공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 교실 (밤)

- 17살 상옥, 교실에서 한글을 배우며 ‘독립’이란 단어를 써본다.

혜수(N)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야학교를 설립해서 밤마다 공부했고,

#. YMCA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외경 (밤)

혜수(N) 국제 정세를 배우기 위해 대학생 틈에서 영어도 배웠고.

#. 교실 (밤)

- 상옥, 교실에서 'Korea'라고 써본다.

혜수(N) 뭐, 제가 사는 시대 말로 하면 엄청난 영재, 뇌섹남이었던 거죠.

#, <영덕철물점>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 (낮)

- 싸여있는 말총 모자들. 그 옆으로 길게 준 선 손님들.

- 거리의 모든 남자들은 말총모자를 썼고, 사장 포스 풍기며 서 있는 상옥.

혜수(N) 그리고 20대 초반에 사업가로 성공해요. 8살 때 배웠던 말총 기술로
당시 잘린 머리카락을 숨기고 싶었던 조선인의 마음을 공략한 핫템,
말총모자를 탄생시켜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현재)

혜수, 핸드폰을 보고 컨닝 하듯 읽으며 말한다.

상옥 그 참.. 신통하오. 그 사전에 나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화는 없소?

혜수 그리고...

상옥, 혜수가 보고 있는 핸드폰으로 쓰윽 고개를 내미는데..

혜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새로고침이 되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다고 뜬다.

혜수 어..? 이제 사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네요.

상옥 뭐, 괜찮소... 우리의 인생은.. 다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

혜수 그러게요.. 저도.. 그 동상에 손을 올려놓지 않는 건데..

상옥 이곳에 온 걸 후회하오?

혜수 신의 뜻에는.. 우연이 없으니.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어
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옥 한국독립당 서울혁명사령부요.

#8. 고봉근 집 앞 / 밤

혜수, 작은 기와집을 올려다본다. 그런, 혜수의 표정을 살피는 상옥.

혜수 아...!

상옥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의 비밀결사지에 온 것을 환영하오. (문에 노크를 하고) 내 왔소!!

#9. 창호 집 / 밤

창호모, 사과를 깎아서 창호에게 주고 있다.

창호 어머니. 요즘, 앞집 아주머니.. 수상하지 않소?
창호모 상옥이 모친...?
창호 오늘 종로경찰서가 폭탄이 터졌소.
창호모 (놀라며) 창호야, 너는.. 괜찮아?
창호 ... 경성에게 그런 일 저지를 자는 김상옥 밖에 없소.
창호모 상옥이는 상해에 있다며? 망명간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창호 (고개를 젖는) 어머니, 아시지 않소? 내 감이 틀린 적 없다는 거.(하고, 나간다)

#10. 고봉근 집, 마당 / 낮

상옥, 평상에 앉아서 신문을 보며 종로경찰서와 관련된 기사를 찾는다.
봉근, 조심히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상옥의 옆에 앉는다.

봉근 처남, 벌써 30명 넘게.. 취조 당했다고 하오. 아무리 이 집이 경성 외곽에 있다고 하나.. 아무래도 경성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상옥 아니요. 내 계획은 여전히 조선총독 사이트 마고토를 암살하는 것이오. 내 의열단 단원들에게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상해에 돌아가지 않는다 하였소.

#11. 김상옥 집, 마당 / 낮

상옥모,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창호, 기척도 없이 들어와 상옥모의 앞에 앉는다.

창호 상옥이 형 상해에 있소?
상옥모 왜...?? 우리 상옥이 소식 들었는가....? 혹시.. 죽었는가...?
창호 (상옥모의 표정만 계속 살핀다)
상옥모 (창호의 눈길을 피한다)
창호 (피식 웃는다) 김상옥 이 새끼.. 경성에 있네?
상옥모 무슨 말인가...? 경성에 있다니...?
창호 (상옥모가 다듬어놓은 채소를 다 뒤집어놓는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터졌는데.. 난 아무래도.. 김상옥 같단 말이오..

상옥모 창호야.. (무릎을 꿇는다) 우리.. 30년 넘게.. 이웃이었잖는가..
창호 그니까.. 내가 얼마나 싫겠어. (채소들을 밟으며) 이번엔 각오해야 할
 거야.

#12. 고봉근 집 앞 / 밤

창호, 문에 귀를 갖다 대고 있다.

#13. 몽타주 / 낮

기와집 앞

- 채소 장수로 변장한 상옥, 문을 노크한다. **남자 노인**, 문을 열고 나오면,
상옥, 노인에게 채소 광주리 하나를 준다.

기와집 안

- 노인, 채소 광주리를 들고 들어와 문을 잠근다.
- 노인, 평상에 앉아 채소를 다른 소쿠리에 담으면 <혁신공보>라는 신문이 있다.
- 신문을 펼치면 '제암리 학살사건의 진실'이란 표제와 삽화가 있다.

상옥 집 앞.

- 창호, 채소 수레를 끌고 들어오는 상옥을 세우고,
순사들과 함께 채소를 던지고 광주리를 뒤지지만.. 신문은 없다.
- 상옥모, 걸어오다가 상옥의 모습을 보고 달려와 창호에게 무릎을 꿇고 빈다.

경찰서 고문실

-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옥, 정신을 잃은 채 창호 앞에 앉아있다.
- 창호, 물을 한바가지 상옥에게 끼얹자, 상옥, 정신을 차리고.
- 일본 경찰, 고문실로 들어오더니 상옥을 풀어주라고 말한다.
- 피식, 창호를 비웃는 상옥. 창호, 분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14. 고봉근 집 앞

창호 (일본어) 내 기필코 너를 잡아, 조선 제일의 남자가 될 것이다.

이 모습을 본 혜수.

#15. 고봉근 집, 마당 / 밤

혜수, 태평하게 앉아있는 상옥에게 뛰어와 말한다.

혜수 밖에.. 누가 서 있었어요. 선생, 위험한 것 같아요..
 상옥 경찰 몇 명쯤은 단숨에 제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봉근 처남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던 몸이오. 이번에 잡히면..
 혜수 당신.. 죽어요.
 상옥 ...
 혜수 알고 있었어요...?
 상옥 독립투사가 죽는다는 것은 숙명 아니겠소?

#16. 고봉근 집, 방1 / 밤

혜수, 누워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인다.

#17. 고봉근 집, 방2 / 밤

상옥, 두 손에 권총을 꼭 잡고 있지만.. 눈을 감고 자고 있다.

#18. 고봉근 집, 마당 & 마루 / 밤

혜수, 달빛을 본다.

혜수 내가 했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거네.. 누군가에겐.. 지루했던 오늘
 이... 누군가에겐 목숨 걸고 지킨..

혜수, 지붕 위에 서 있는 경찰들을 본다. 놀라고, 당황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혜수 어.. 어... 어.. (마침내 목소리가 나오는) 선생!!!

경찰들, 불 켜진 방의 방문을 열고 무작정 총을 쏜다.
 총알이 혜수의 몸을 뚫고 지나가지만.. 다치지 않는 혜수.
 경찰들이 총을 쏜 방은 혜수가 있었던 방이었던 것.
 다시, 불 꺼진 방 앞에 서는 경찰들.

#19. 고봉근 집, 방2 / 밤

상옥, 총소리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재빠르게 이불을 말아서 낮은 자세를 취하며 양손에 권총을 들고 사격준비를 한다.

#20. 고봉근 집, 마당 & 마루 & 방2 & 지붕 위 / 밤

경찰1, 상옥이 있는 방의 문고리를 여는 순간, 총을 맞고 쓰러지고.
 상옥이 연달아 쏜 총에 경찰 3명이 쓰러진다.
 버선발의 상옥, 문을 빠져나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창호와 눈이 마주친다.

상옥, 창호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가 거두는데..

창호, 상옥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상옥 창호야, 자손만대에 원한의 적이 되지 마라. 조선은 독립할 것이다.

20명 가까운 경찰들, 상옥을 쫓는데, 상옥, 사라진다.

#21. 남산 / 밤

200명 가까운 경찰들, 수색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한참 앞에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축지법을 쓰듯 뛰어가는 상옥.

상옥의 버선에는 눈이 들어가고, 추운 날씨로.. 상옥의 얼굴이 빨갱게 변했다.

빨갱게 변한 또 다른 얼굴, 헤수가 경찰들보다 앞서 뛰고 있다.

#22. 절 법당 / 새벽

절을 올리고 있는 스님.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껴서, 뒤돌면, 상옥 서 있다.

CUT TO. 승려복으로 갈아입은 상옥, 기도를 드리고 있는 헤수를 본다.

헤수(E) 제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상옥 사전에.. 내가 이곳에 온다는 것도 적혀있었소?

헤수 (눈을 뜬다) 선생이 무사히 산을 내려갈 거란 말도 있었어요.

#23. 절 법당 앞 / 새벽

상옥, 짚신을 신으려고 하는데,

헤수, 짚신을 반대방향으로 신도록 돌려준다.

헤수 어...? 물건이 만져졌어요?

상옥 (헤수의 손을 잡는데.. 손이 잡힌다)

헤수 (상옥의 손을 잡고 신기한 듯 상옥의 눈을 보는데)

상옥 (당황한 듯 헤수의 손을 놓는다) 아침이 오기 전에.. 내려가요.

#24. 하산길 / 새벽->아침

상옥의 거꾸로 신은 짚신 때문에 상옥의 발자국은 마치 산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헤수의 발자국은 생기지 않는다. 눈보라는 더 짙어지는데..

성큼성큼 뛰어서 내려가는 두 사람.

상옥 당신이.. 온 미래는 어떨소. 내게도 기회가 된다면, 해방된 조선, 100

년 후의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고 싶소.

혜수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라는 걸 남겼는데..

상옥 혹시.. 내가 아는 그 김구 선생님이오?

혜수 네.. 그 분은 아주 짧지만.. 해방된 조선에서 살았거든요.

상옥 (얼굴이 밝아진다)

혜수 그 분의 작은 소원은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갖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이루었거든요. k-culture라고 해서.. 전 세계 1위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찍죠. 그 산증인 중에 한 명은 나고.

상옥 당신도.. 유명한 사람이오?

혜수 제 얼굴을 봤으니까, 모르진 않을 텐데. 엄청 예쁜 거~

상옥 허허.

혜수 나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혹시 100년 뒤를 여행하게 되면, 은혜수를 찾으세요. (픽 웃다가, 멈춰서고) 내가.. 잡는 법을 터득했으니.. 잠시 보관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상옥 (혜수를 본다.)

#25. 냇가 / 낮

상옥, 잠시 목을 축이고, 혜수, 주변을 둘러보는데. 상옥에게 다가오는 일본 경찰들.

혜수 좌측에 일본 경찰들이 오고 있어요.

상옥 (당황함을 숨기고, 가방에 있던 발우를 꺼내 냇가에 씻는다)

경찰1 (일본어) 거기.

상옥 (인자하게 고개를 들어 경찰을 본다)

경찰2 (상옥을 강제로 일으키고 몸수색한다. 일본어로 경찰에게) 아닙니다.

경찰1 (일본어) 가지.

경찰들 떠날 때까지, 상옥 발우를 옷깃으로 소중히 닦아 가방에 넣는다.

혜수 갔어요. (옷깃을 열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총을 보여준다)

상옥 고맙소..

#26. 채소밭 / 저녁

우편배달부 복장을 한 상옥, 익숙한 듯 두리번거리며 걷는 혜수.

혜수 여긴.

상옥 믿을만한 내 동지의 집이오.

혜수 여긴..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장소예요. 장소는 같고, 시간만 다

르게 흐르고 있다면.. 아마도 미래엔 내가 말했던 김상옥 동상이 있는
곳이에요.

상옥 .. (쓸쓸하게 웃는) 그렇소..

#27. 김태성의 집 앞 / 저녁

상옥, 문을 두드리는데..

태성(남/노인)이 나와서.. 상옥을 보고 놀란다.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집으로 들인다.

#28. 김태성의 집 마당 / 저녁

12살짜리 여자꼬마(이하 꼬마), 신문을 읽다가 상옥을 발견하고 “오라버니!” 부른다.

태성, 상옥을 보고 반갑게 웃는다. 혜수,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

태성 몸은.. 괜.. 찡은것이나..?

상옥 발가락 동상 빼고는.. 괜찮습니다.

태성 아기가, 얼른 불 따끈하게 넣어라.

상옥 어르신.. 고맙습니다..

#29. 김태성의 집 방 / 밤

상옥, 자다가 깜짝 놀라는데.. 태성이 상옥의 발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다.

태성인 것을 본 상옥, 다시 잠이 든다.

#30. 김태성의 집 마당 / 저녁->새벽

진눈깨비가 내리고, 상옥은 나무에 책을 붙이고 격파훈련을 하고 있다.

상옥의 허리에는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총이 꽂혀있다.

혜수, 꺼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데.. 눈은 금방 무릎까지 쌓인다.

혜수 내가 조선에 온지 오늘이 9일째예요.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겠죠..?

상옥 (격파를 멈추고) 그동안, 나 따라다니느라 고생이 많았소.

혜수 혹시.. 총알 하나.. 내게 줄 수 있어요...?

상옥 ...?

혜수 위급한 상황에.. 혹시 제가 그 총알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
까..?

상옥 (곧.. 총에서 총알 하나를 꺼내 혜수에게 준다) 약속하오.

혜수 .. 아무래도 이상해요... 너무 고요해요. 폭풍전야처럼.. 제가.. 평소
에.. 좀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그럼.. 선생 미래도 알고 있을 텐데..

상옥 .. 내 운명은 변하지 않소. 나는.. 어떤 상황이 되든.. 이곳에 남아 일

본군 한명이라도 더 죽일 것이오.

혜수 ... 어찌면.. 선생이..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미래는..

상옥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존재했을 것이오. 우리의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 조선이 간절히 독립을 염원했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소.

혜수 ... 선생. 미안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상옥 과거를 잊고, 지금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이오. 나는 우리 후손이 그러길 바라오.

혜수 어찌면 내일.. 선생이 죽는다고요..

상옥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진 않을 것이오. 그리고.. 오늘은 너무 춥지 않소. (혜수의 손을 잡는다) 내일 움직입니다.

CUT TO. 새벽.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리는 눈. 지붕 위엔, 일본 경찰들이 있다.

<인서트> - 태성의 집을 겹겹이 싸고 있는 1000여 명의 경찰들.

태성, 마당으로 나오다가 문으로 조용히 들어서고 있던 창호와 일본경관들 마주친다.

태성 (큰소리로) 조창호!!!!!!!!!!!!

창호 (태성의 뺨을 때린다. 일본어로) 조용없어. 이미, 독안에 든 쥐니까.

#31. 김태성의 집 방 / 새벽

상옥, 눈을 뜬다. 지붕 위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문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총을 챙긴다.

#32. 김태성의 집 마당 / 새벽

상옥이 있는 방문 앞에 서서 총을 들고 경계태세인 경찰들.

그러나 아무도 방문을 열지 못하고 눈치만 살핀다.

이때, 꼬마를 총으로 위협하며 끌고 온 창호.

창호 (꼬마에게) 열어!

꼬마 (벌벌 떠는데...)

창호 (총으로 다시 위협하며) 열라고!!

꼬마, 포승줄에 묶여 있는 태성을 봤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눈을 꼭 감고 연다.

#33. 김태성의 집 방 / 새벽

아무도 없다. 창호와 경찰들 방안으로 들어가서, 방을 살피는데

<인서트> - 방안 벽장에 숨어 있는 상옥.

창호, 벽장이 수상해서.. 다가가는데.. 방으로 들어온 일본경찰 작전 책임자(보안과장)
창호를 방패삼아.. 벽장으로 다가간다. 창호, 꼬마처럼 두려움에 눈을 꼭 감는데..
벽장문을 열면, 널빤지로 된 벽이 뚫려 있다.

책임자 (일본어) 도주했어, 잡아!
창호 (그제야, 눈을 떠 본다)
책임자 (일본어, 창호를 향해) 한심한 조센징.

#34. 지붕 위 & 마당 / 새벽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상옥, 쫓는 경찰들의 총격전.

책임자 (창호를 향해, 일본어) 방법은?
창호 (일본어) 항복하라고 할까요...?
책임자 (일본어) 김상옥 항복하라. 지금 항복하면, 죄는 가볍다!

그러나, 날 썬 상옥을 쫓을 수 없는 경찰들.
상옥의 총에 맞은 경찰들, 지붕 아래로 시체가 되어 떨어진다.
혜수, 마당에서 상옥을 간절하게 보는데.. 상옥을 도울 방법이 없다.
상옥, 다른 기와집으로 날아오르며 책임자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
책임자, 창호의 뒤로 숨고, 창호, 총이 심장을 관통해 그대로 즉사한다.

책임자 (일본어) 방법은, 난사군.

#35. 채소밭 & 김태성 집 마당 & 기와 집 지붕 위 & 변소 / 새벽

책임자, 태성의 집을 둘러싼 경찰들에게 명령한다.

책임자 (일본어) 그냥, 썬. (손을 들어올린다)

무차별 난사가 시작되고, 함부로 쏘는 총탄에 모든 집의 유리창이나 장독이 깨지고,
연기는 자욱하다.

혜수 (지붕 위 상옥에게) 변소.. 변소로 와요.

상옥, 변소로 들어간다.

변소에 선 상옥, 넓적다리에 총을 맞아.. 더 이상 자신이 떨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총을 보는데.. 총알이 없다.

상옥 내게... 마지막 남은 총알 하나를 주겠소.

혜수 (고개를 젓는다)

상옥 약속하지 않았소..? 내 자결할지언정,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

총소리가 없자, 포위망을 좁혀 오는 일본경찰들.

상옥 마지막이라는 걸 알지 않소. 나의 마지막 한은 독립한 조선을 보지 못한 것뿐이오. 우리는 다음 생에 만납시다.

변소 앞 일본경찰들. 그러나 상옥이 두려워 다가오지 못한다.

책임자, 상옥모를 끌고 변소 앞으로 걸어간다.

혜수, 마지막 남은 총알 하나를 준다.

상옥, 총알을 총에 끼워넣고 자신의 머리에 겨눈다.

상옥 내게 희망을 주어 고마웠소.... (큰소리로) 대한독립만세

변소 앞, 총알소리가 또 한 번 울려퍼지고, 순간적으로 움찔한 책임자.

상옥모를 위협하며 변소문을 열게 하는데..

상옥모, 변소문을 열면, 일본 경찰들, 모두 몸을 반사적으로 낮춘다.

오직,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상옥모와 혜수뿐.

두 눈을 부릅뜬 채, 쌍권총을 변소문을 향해 겨누고 있는 상옥이 있다.

상옥모, 변소로 들어가서 상옥의 눈을 감겨주고, 어깨를 토닥이다가,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만져주는데, 가슴에서 피로 얼룩진 태극기가 나온다.

태극기로 상옥의 몸을 덮어주는 상옥모.

혜수 (핑핑 울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을 알리는 닭울음소리가 들리고, 혜수의 몸, 사라진다. (화이트 아웃)

#36. 마로니에 공원 / 낮 - 현재

혜수, 눈물을 똑똑 흘리고 있다. 매니저, 혜수를 부른다.

매니저 누나..!

혜수 (눈을 뜨는데.. 현재라는 것을 알고.. 주저앉는다) 상옥 선생은...?
매니저 네...? (동상을 보고, 혜수 얼굴보고) 누나.. 꿈 꿔어요...?

혜수, 다시 일어나, 김상옥 동상을 본다.
그저, 김상옥 동상의 발을 다시 만져보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때.. 혜수를 가리는 그림자 하나. 혜수, 고개를 들어보면,
상옥을 똑 닮은 남자가 서 있다.

혜수 김상옥.. 선생?
남자 (미소만.. 짓는데)
매니저 작가님..? 누나, (대본을 내밀며) 이거 쓰신 작가님이에요.
남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은혜수 씨.
혜수 ? (다시, 눈물이 차오른다.)

#37. 빨간 벽돌집 앞 / 낮 - 현재

다른 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 쌓여있다.
하얀 국화를 놓고, 쓰레기를 치우는 혜수의 손.

혜수(N) 당신을 잊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38. 대학로 / 저녁

상옥이 죽은 날처럼, 하얀 눈이 내린다.
혜수, 걸다가 연극포스터를 올려다보는데.
<10일간의 여행>이란 연극 제목과 상옥과 혜수가 함께 서 있는 사진이 찍혀있다.

혜수(N)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